

郷土愛護運動

— 郡單位 公園造成 바람직 —

金 憲 奎 (國立公園協會理事)

愛國心

愛國心은 愛郷心에서 우러나오는 心情이다. 父母兄弟가 他國에 移民가서 살아도 故國이 그리워 지는 것은 故郷의 山川이 그리움기 때문이다. 고향의 山川이 그리운 것은 山川의 아름다운 風景이 記憶속에 사무쳐있기 때문이다.

獨逸의 愛國者「루돌프」는 1880年代에 郷土愛護運動을 벌이고 獨逸國民은 故郷의 自然을 아끼고 사랑 할 것을 強調하였다.

고장의 自然美·巨樹·바위·溪谷·江·動植物 等은 고장의 住民들이 돌보고 손상하지 말고 잘 保護하자는 運動이었다.

오늘날의 獨逸國民이 自然을 잘 保護하게 된 것도 「루돌프」의 思想이 實踐됐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西獨에서는 어린이들에게 “愛國心을 鼓吹하기 前에 아름다운 風景地를 보여 주라”는 標語를 實踐하고 있는 것이다.

愛郷運動의 方法

郷土를 사랑하는 愛郷運動은 郡單位로 實踐하는 것이 가장 効率的이라고 생각한다.

① 基礎調査

郡守責任下에 郡內 中高校 生物教師로 調査班을 組織하여 自然美를 갖춘 景觀地·動植物 等 保護對象을 調査한 후 가장 秀麗한 地域을 自然公園으로 指定해야 할 것이다. 모든 用役事業은 國立公園協會와 契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自然公園의 管理와 利用

自然公園의 管理는 自然公園法에 따라 해야 하겠지만 利用에 있어서는 郡內 各級學校의 野外授業場으로 利用해야 할 것이다.

③ 環境教育委員會

自然과 自然公園을 教育的으로 利用하기 위해서는 學校長, 教師, 學父母 等으로 構成되는 委員會를 組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國立公園 13號 43-44面 參照)

④ 採集禁止

動植物의 採集은 原則적으로 禁止되어야 自然을 保護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國會에서 野生動植物保護法으로 規定해야 하겠지만 外部에서 오는 觀光客이나 아마추어採集家들이 마구 채집하거나 自然石·花木 等を 家庭用으로 掘取하는 것은 住民들이 防止해야 할 것이다.

⑤ 自然保護監視班

고장의 自然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面別로 各級學校 教師·學生들로 監視班을 組織하고 自然을 破壞하거나 密獵者를 發見할 때는 直時告發할 수 있는 機構를 組織하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監視班員들은 自然의 破壞를 監視할 뿐만아니라 積極인 活動을 벌여서 植木도 하고 街路樹도 保護하며 自然과 關係있는 新화·전설

·속담·民謠 蒐集等を 年中 實施하여 年末에 發表會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工業團地나 蓄産團地가 있는 고장에서는 環境汚染 實態도 恒時 監視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⑥ 野 營

自然공부는 現地에 가서 實物을 보면서 教師의 指導를 받는 것이 效果的이므로 國民學校 5·6學年 中·高校 1·2學年 學生들이 여름休暇동안에 自然公園에 가서 野營을 하는 것은 좋은 經驗이 될 것이다.

野營은 團體生活의 訓練도 되고 稀貴植物의 名札을 다는 作業도 하고 環境美化作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⑦ 고장의 動物保護

옛날에는 仁旺山에서도 호랑이가 살았고 해마다 虎皮 150 枚를 輸出했다고도 하지만 지금은 호랑이는 滅種된지 오래고 현재 남아 있는 陸棲動物로는 멧돼지·노루·고라니·영양·족제비·오소리·목도리담비·곰·살쥍이·표범·멧토끼·다람쥐·고슴도치·두더지·쥐(쥐·땃쥐·21種)박쥐(29種) 정도이고 바다속에서 사는 고래(5種)·물돼지(3種)·물범(2種)·물개(2種)·수달(1種)·바다사자(2種)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짐승의 保護는 密獵을 告發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自由로 날아서 移動하는 새를 保護하는 데는 여러가지 對策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8目 369種의 새가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새는 數 10種에 不過할 것이다.

새들은 그들의 移動生態에 따라 텃새·여름철새·겨울철새·나그네새·떠돌이새·길잃은새 등으로 나눈다.

텃새는 우리나라에서 4季節을 살면서 번식하는 새들이다.

참새·까치·어치·까마귀·평·멧비둘기·방울새·종다리·흑비둘기·박새·굴뚝새·곤줄박이·멧새·동박새·오색딱다구리·크낙새·원앙이 등 48種이 있다.

떠돌이새는 텃새 중에서 여름에는 山岳地帶로 가서 곤충을 잡아 먹으며 살다가 눈 오는 겨울에는 平地로 내려와 풀씨를 따먹는 새들이다. 찌르러기·갓까마귀 등을 보기로 들 수가 있다.

여름철새는 해마다 봄이오면 열대지방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여름에 번식하고 가을에는 열대지방으로 돌아가는 새들이다.

제비·귀제비·피꼬리·八色鳥·호반새·물총새·뺨꾸기·백로·왜가리·파랑새·뜸부기·후투티 등 57種이 알려져 있다.

겨울철새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北方에서 내려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오면 北方으로 날아가는 새들이다.

두루미·재두루미·청둥오리·기러기·고니·비오리·쇠오리·가마우지 등 107種이 있다.

나그네새는 철새 중에서 長距離를 移動하는 途中에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는 새들이다.

저어새·물수리·솔개·도요새類·쇠술새·울새·제비갈매기·등 79種이 있다.

길잃은새(迷鳥)는 異例的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새들이다.

군함조·해오라기·붉은해오라비·큰물떼새·장다리물떼새·검은지빠귀·흰멧새·검은멧새·붉은지빠귀·흰죽지갈매기 등 43種이 알려져 있다.

새가 地球上에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약 1億 5千萬年前인 侏羅紀라는 것이 化石의 研究로 證明되었다. 現在 地球上에 살아 남은 種數는 8,600種이지만 過去에 300種이 滅種되었고 滅種危機에 있는 새도 343種이라는 것이 IUCN의 調査로 알려지고 있다.

두루미類는 本來 40種이 있었으나 25種이

滅種되었고 現在는 13種이 남아 있고 두루미·재두루미·등은 滅種危機에 빠져 있는 實情이다.

곤충·미꾸라지·개구리 등을 잡아먹는 새는 농약이 묻은 동물을 잡아먹고 죽는 일이 많으므로 농약은 새를 죽이는 元凶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새가 번식하는 4~6月에는 농약살포를 신중히 할 必要가 있다.

새그물·사이나·새총·엽총 등으로 새를 잡거나 죽이는 일을 禁止해야 할 것은 勿論이다.

적극적인 保護對策으로는 먹이주기·둥우리상자달기·새가 먹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심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둥우리에서 알을 훔치는 일을 막는 일들은 고장의 指導層에서 關心만 있으면 쉽게 실천 될 것이다.

뱀을 마구 잡아서 생사탕을 끊이는 일이나 개구리 川獵을 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뱀은 쥐를 잡아먹고 개구리는 害蟲을 잡아먹는 利로운 點이 있기 때문이다.

溪谷에 흐르는 물은 江물보다 차기 때문에 찬물에만 사는 特種 물고기가 살고 있으므로 保護할 必要가 있다.

熱目魚같은 天然記念이 있는 고장에서는 特別히 保護해야 할 것이다.

나비는 250余種이 알려져 있는데 고훈나비를 마구잡이 하므로 개체수가 激減되고 있는 것은 유감 된 일이며 철저히 막아야 할 일이다.

나비는 어린이들의 情緒生活에 有益하고 學校教育에 좋은 教材이므로 잘 보호해야 되겠고 특히 나비를 잡아서 商品化하는 일은 절대로 막아야 할 것이다.

日本 觀光客中에는 他國에 가서 고훈나비를 채집해다가 高品化하는 일이 많으므로 인도네시아·印度같은 나라에서는 日本의 나비採集家의 入國을 反對하는 示威까지 벌린 일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많이 오는 日本觀光客中에서 고훈나비인 신무나비·산제비나비·유리창나비·이른봄애호랑나비 등 稀貴한 나비들을 잡을 目的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므로 채집망을 들고 오는 사람이 고장에 나타나면 우선 告發하고 채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⑧ 고장의 植物保護

地球上에 現存하는 植物은 42萬種이고 우리나라에는 1%인 4200種이 있다.

天然記念物이나 稀貴한 植物이 自生하는 고장에서는 特別한 관심을 가지고 保護해야 되겠지만 普通植物이라도 고장에 自生하는 植物은 모두 保護해야 될 것이다.

野生動植物은 觀察하고 촬영만하고 손상하거나 採集해서는 안될 것이다.

都市人들은 地方에 가서 花木을 캐다가 自己집 庭園에 심는 것을 꺼리낌없이 恣行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장의 住民들이 막아내야 할 것이다.

筆者가 1978年 8月 14일 울릉도에 自然觀察次 갔을때 서울에서 大學生들이 植物採集하러 내려가 聖人峰의 植物을 마구 채집하는 것을 봤는데 고장의 住民들은 아무도 이에 關心을 가지지 않는것 같았다. 島嶼地域의 植物이나 動物을 채집하여 搬出하는 것은 禁止돼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植物學者 T. Nitzelius 博士는 일찍이 울릉도를 踏查하고 歸國하여 發表한 글속에서 聖人峰에는 日本에도 없고 本土에도 없는 貴한 植物들이 自生하므로 잘 保護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섬의 動植物은 採集搬出을 하지 않는 것이 常識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번 全滅되면 復元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學問研究를 위하여서는 觀察만하고 天然色으로 촬영을 하여 슬라이드를 만들면 教材로 쓸 수 있고 論文의 採畫로도 쓸 수 있으므로 구태어 채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뿌리채 掘取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學校에서 가르치고 住民들은 섬의 生物資源의 貴重함을 알고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南海의 島嶼는 栲栢林의 分布로 世界에 알려져있는데 해마다 2~3月이면 無數한 栲栢꽃이 트럭으로 서울에 送搬되어 市販되고 있음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앞으로는 禁止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4年 4月 日本 3景의 하나인 巖島(이즈꾸시마)에 가 본 일이 있는데 마침 人夫들이 아람드리 소나무를 톱으로 베고 있어서 國立公園 境內의 소나무를 왜 베느냐고 물었더니 먼 바다건너 20里밖의 工場굴뚝에서 날아오는 煙氣때문에 소나무害蟲의 天敵인 “고치벌”들이 죽어버려서 蟲害로 말미암아 소나무가 말라 죽었기 때문에 베는 것이었다.

對策이 없느냐 하고 案内者에게 물었더니 工場을 移轉하는 것 뿐인데 그것이 容易하지 않다는 對答이었다.

工業團地가 있는 高嶺에서는 이러한 일도 있다는 것을 銘心하고 環境汚染도 監視해야 할 것이다.

⑨ 세미나 開催

해마다 한번씩 8月을 期하여 郡內 各級 學校 教師와 社會指導層人士를 위한 세미나를 開催하고 大學教授를 講師로 招聘하여 自然保護와 環境汚染에 대한 主題講演과 討論을 벌리고 自然公園을 踏查하도록 하며 세미나場所는 自然公園에서 가까운 學校 教室을 利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短

信

第3次 世界 國立公園大會 開催

日 字 : 1982. 10. 11 ~ 22

場 所 : 인도네시아 발리島

公園資源의 保護 — 있는대로 생긴대로 간직하자

公園利用의 增大 — 自然의 圖書館이요 博物館이다